

중동 '침대축구' 넘어야 월드컵 보인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7일 오후 8시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레바논과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A조 2차전 홈 경기를 치른다.

이라크와 비긴 벤투호, 내일 레바논과 최종예선 2차전 2차예선 1승1무 앞서... 선제 실점하면 시간끌기 당해 남태희, 부상으로 소집해제... 손흥민 등 유럽파 출격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첫 경기에서 이라크와 비긴 벤투호가 진짜 '침대 축구'를 다시 만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7일 오후 8시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레바논과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A조 2차전 홈 경기를 치른다.

한국은 앞서 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벌인 이라크와 최종예선 1차전에서 득점 없이 0-0으로 비겼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36위인 한국은 2006년 독일월드컵 때 한국의 수장이던 디크 아드보카트 감독이 이끄는 이라크의 밀집 수비를 뚫지 못했다.

안방에서 승점 1점 획득에 그친 한국은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을 향한 첫발을 무겁게 뒀다.

2차전 상대는 월드컵 2차예선에서 만났던 레바논(98위)이다.

2019년 11월 14일 레바논 원정예선 0-0으로 비겼고, 올해 6월 13일 홈 경기는 상대 자책골과 손흥민의 페널티킥 결승골로 2-1 역전승했다.

상대 전적에선 한국이 10승3무패로 크게 앞서지만, 최근 두 번의 맞대결 모두 쉽지 않았다.

특히 진판승을 거둔 레바논과 2차예선 두 번째예선 벤투 감독이 상대의 '침대 축구'에 격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심판진이 시간 지연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줬으면 한다. 최종예선에서도 이런 일이 흔하게 발생하면 아시아 축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냈다.

지난번 이라크전이 끝난 뒤에도 주장 손흥민이 "우리가 잘 못해서 골을 못 넣었지만, 이렇게 된다면 축구의 발전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침대축구

자기 팀에 유리한 점수로 경기가 진행되고 있을 때 상대 팀 선수와의 작은 몸싸움에도 고의적으로 넘어져야만 득점하며 시간을 끄는 행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하지만 레바논에 비하면 이라크는 양반이다. 실제로 레바논은 중동에서도 둘째 가라면 서러울 '침대 축구' 달인이다. 선제골을 넣은 뒤엔 수시로 그라운드에서 드러누워 시간을 지연한다. 이는 지난 맞대결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레바논은 1차전인 아랍에미리트(UAE) 원정에서도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홈 팀인 UAE가 69.9%의 높은 점유율과 14개 슈팅으로 레바논(슈팅 5개)을 압도했지만, 골문을 열지 못했다.

레바논은 경고를 3장이나 받을 정도로 거친 수비와 시간 끌기로 원정에서 승점 1점을 챙겼다.

이런 경기 스타일은 한국전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전략 누수도 있다. 이라크와 첫 경기 전 미드필더 정우영(알 사드)이 귀국 항공편 승객의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돼 차출이

불발된 데 이어 남태희(알두하일)마저 햄스트링 부상으로 소집해제 돼 레바논전에 뛰지 못한다.

남태희는 이라크전도 벤치에서 시작해 후반만 소화했다.

이번 소집에서 유일한 중동파였던 두 선수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것은 결과적으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레바논전도 유럽파가 최대한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31일 귀국 후 하루만 쉬고 이라크전을 풀타임 소화했던 손흥민이 충분한 휴식과 시차 적응을 마치고 레바논전에 나선다.

황의조(보르도), 이재성(마인츠), 황인범(루빈 카잔)도 컨디션을 끌어올렸고, 교체로 뒀던 황희찬(울버햄튼)도 레바논전 선발 가능성이 있다.

올여름 이적시장서 라이프치히(독일)를 떠나 울버햄튼 유니폼을 입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무대에 입성한 황희찬은 "선수들도 이라크전 실망이 크다"며

"최종예선은 결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레바논전은 결과를 반드시 가져오겠다"라고 각오를 보였다.

스카이데일리/뉴스

남궁민·박하선·김지은 남다른 케미 예고

MBC 창사 60주년 특별 드라마 '검은 태양'서 주연 맡아

배우 남궁민(사진)과 박하선, 김지은이 MBC 새 금토드라마 '검은 태양'을 통해 남다른 케미스트리를 예고했다.

17일 오후 10시 첫 방송을 앞둔 MBC 창사 60주년 특별기획 새 금토드라마 '검은 태양'은 일 년 전 실종됐던 국정원 최고의 현장 요원이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내부 배신자를 찾아내기 위해 조직으로 복귀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박석호 작가의 2018년 MBC 드라마 극본 공모전 수상작이다.

남궁민과 박하선, 김지은은 각각 국정원 소속 요원인 '한지혁'과 '서수연' '유제이'로 분한다. 한순간에 아끼는 동료들을 잃고 기억이 사라진 채 일 년 만에 국정원에 돌아온 한지혁과 그의 동기 서수연, 한지혁

의 파트너가 된 유제이가 상상치 않은 인연으로 얽혀 극의 전개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남궁민은 박하선-김지은 배우와의 호흡에 대해 "두 배우 모두 연기에 대한 열정이 아주 깊다. 먼저 박하선 배우는 진중하면서도 캐릭터에 대해 심도 있게 몰입하고, 김지은 배우는 제이 특유의 발랄하면서도 이중적인 모습을 잘 살려줘 함께 연기하기에 너무 좋았고 수월했다"고 극찬했다.

또 "김지은 배우와는 '닥터 프리즈너'라는 작품을 하면서 만난 적이 있고 그때 '연기 참 잘하네'라는 생각을 했다. 이후 광고 촬영장에서도 다시 만났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검은 태양'을 통해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게 돼 반가웠다"고 특별한 인

연을 소개했다.

박하선은 "남궁민 배우는 몸을 몇 주 사이에 금방 만들어서 놀랐다. 워낙 열심히 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이번에도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며 작품을 위해 운동으로 무려 10kg를 증량한 남궁민의 노력에 박수를 보냈다.

'검은 태양'을 통해 첫 주연에 도전하는 김지은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선 두 선배님과의 연기 호흡은 '말해 뭐해?'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박하선과의 호흡에 관한 질문에도 "촬영장에서 제가 긴장하고 어려워하고 있을 때면 토닥여 주시면서 입 모양으로 '잘하고 있어'라고 말씀해 주신다. 연기적인 부분 외에도 많은 고민을 들어주시고 제 편에서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달고 싶은 모습이 너무 많은 선배님"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세 주연 배우가 국정원 내에서 펼



처지는 치열한 갈등 속에서 원망, 불신, 믿음, 동료애 등 다양한 감정을 만들어가는 인물들의 감정선을 어떻게 그려나갈지 궁금증을 모은다. 스카이데일리/뉴스

관광공사, 영상 또 터졌다... 흥행 조짐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 시즌2, 하루 만에 조회수 30만뷰

한국관광공사 홍보영상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 시즌2도 흥행을 예고했다.

관광공사가 3일 선보인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 중 충청남도 서산 편 '머드맥스'(사진)는 영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를 모티브로 한 영상이다.

특히 바지락을 캐러가는 경운기 수십 대가 일제히 갯벌을 가로지르는 장면은 세련된 연출로 영화 '매드맥스'같은 속도감을 선사한다.

시즌2에 삽입된 문구는 지난해 시즌 1 영상 문구 '치어 업 더 월드(#Cheer up the world)' 및 유 레이터(#Meet you later) 중 마지막에 문구 '밋 유 soon(#Meet you soon)'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가수 '이날치'의 '범 내려온



다'로 잘 알려진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 시즌1은 화려한 영상과 중독성 있는 음원으로 인기를 끌어 4개월 만에 누적 조회수 6억뷰를 넘겼다.

시즌2는 공개 하루 만에 유튜브 조회수 약 30만뷰를 기록했다. 시즌2 음원은 17일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스카이데일리/뉴스

WANNA RISE?

ALCOBAÇA Stream DOUBLE WAVE



WANNA SPIN?

Ray SX-ZERO



RomaRo

(주)유니스코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89-5 인스코빌딩 문의전화 031)726-0085